

| 풍경으로의 여행 |

# 두 발로 만나는 투명한 겨울

## 강릉과 평창을 잇는 눈꽃 로드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눈 많은 고장 강원도. 그 중에서도 평창과 강릉은 눈꽃 로드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재길에서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강릉과 평창을 잇는 대관령 옛길을 걸으며 푸른 바다를 상상한다. 하얀 솜이불 곱게 펼친 대관령양떼목장의 수목화 같은 풍경도 이번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조연들이다.

### 눈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얻다. 오대산 선재길

오대산 선재길은 평창을 대표하는 두 사찰,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옛길이다.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월정사와 상원사를 오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야 했다. 선재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화엄경의 선재동자에서 따온 이름이다.

월정사 후문에서 출발해 상원사에 이르는 9.1km의 선재길은 지난 2016년 10월 월정사 주차장에서 일주문을 거쳐 전나무숲길로 돌아오는 순환코스가 완공되면서 전체 거리가 10km로 조금 늘었다. 덕분에 왕복으로 오가야 했던 월정사 전나무숲길 아름다운 풍경을 무장애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순환코스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월정사 일주문과 전나무숲길을 지나 온 오대산 선재길은 자연스레 월정사로 이어진다. 월정사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친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경내에는 평창 월정사 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등 많은 유물이 남아있다.

월정사를 찬찬히 돌아보고 범종루 옆 샛길로 빠져나오면 옛 선재길 들머리에 닿는다. 키 큰 자작나무 숲길로 시작하는 오대산 선재길은 계곡을 따라 가기도 하고, 계곡을 건너 다시 숲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길 어디에도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리서는 구간이 없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선재길 끝에 만나는 상원사는 조선 7대 왕인 세조와 문수보살의 인연 설화로 유명한 사찰이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



하얀 눈 곱게 쌓인 오대산 선재길



오대산 선재길 쉼다리



오대산 선재길이  
시작되는 월정사



상원사에 있는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과  
목조문수보살좌상(보물 제1881호)

221호)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보물 제1881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인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 수목화처럼 멋진 설경을 간직한 곳, 대관령 양떼목장

평창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대관령 양떼목장이다. 투명한 하늘과 어우러진 눈 덮인 낮은 구릉은 물이 채 마르지 않은 수목화처럼 아름답다. 아마도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말은 이런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대관령 양떼목장 산책로는 목장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돌아오는 1km 남짓한 코스다. 뭉뚱한 연필심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길은 되도록 천천히 걸어야 한다. 걷는 내내 귀가에 맴

대관령양떼목장의 아름다운 설경





귀여운 양들



도는 양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좋은 길동무가 되어준다. 가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야 말로 대관령 양떼목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해발 920m에 이르는 산책로 정상에 서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와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초 먹이주기 체험장은 산책로 끝에 있다. 안내소에서 받은 입장권은 체험





황태덕장

장에서 건조 한 바구니로 교환해 준다. 순한 모습과 달리 먹성 좋은 양들은 건조 한 바구니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운다. 양에게 건조를 줄 때는 바구니 째 내밀기보다는 손으로 조금씩 털어 주는 게 나름의 요령이다.

### 과거와 현재, 바다와 산을 잇는 길. 대관령 옛길

평창을 대표하는 눈길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대관령 옛길이다.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옛길은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 해서 대굴령이라 불렸다. 걷다가 미끄러져 구르고, 또 걷다가 미끄러져 굴러야 간신히 넘을 수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 험한 길을 통해 강릉과 평창이 만난다. 동해에서 잡힌 해산물은 대관령을 올라 영서지방으로 퍼져 나갔고, 영서지방에

서 생산된 토산품은 평창에서 시작되는 이 길을 따라 구산장과 연곡장 등으로 넘어갔다. 어디 물품뿐이라. 어린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고, 송강 정철은 이 길을 지나 관동 지역을 유람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향했던 많은 선비들의 발자국이, 등짐 들쳐 맨 보부상들의 굵은 땀방울이 모두 이 길 위에 화석처럼 남았다.

대관령 옛길은 참 순하다. 완만한 비탈도 그렇지만 넉넉한 품과 급하지 않게 돌아가는 길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다. 정상을 목표로 발끝만 보고 걷는 등산이 직선이라면, 대관령 옛길은 곡선에 비유할 만하다. 누구의 걸음도 넉넉히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곡선. 어디 한 곳 모난 데 없는 둥근 공처럼 단 한순간도 거칠게 몰아세우지 않는 대관령 옛길은 전체 6km에 이르는 구간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한결같다. 물론 아주 간혹, 가파르게 내려선다 싶은 곳도 있다. 하지만 그런 곳엔 어김없이 나무 계단이 설치됐고, 다리가 빠근해질 만하면 당연하듯 쉬터가 나온다. 또렷한 길도 고마운데, 갈림길까지 없으니 길 잃을 염려도 없다. 덕분에 아무리 느긋하게 걸어도 산길을 벗어나는 데는 2시간이면 족하다.

서산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유리가루처럼 흩날리는 눈들



대관령 옛길 풍경



대관령 옛길을 걷는 산객들



## 산과 바다가 키운 겨울 진미를 맛보다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평창, 강릉 여행은 그만큼 먹거리도 풍성하다. 선재길이 시작되는 월정사 인근에는 산채요리를 맛볼 수 있는 산채정식집이 많다. 오대산 산채정식에는 20여 가지의 산채에 된장찌개, 조기구이, 도토리묵, 더덕구이 등 밑반찬이 더해진다. 산채정식은 산채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어도 좋고, 조금씩 덜어낸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어도 맛있다. 평창의 겨울 별미에서 황태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겨우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꾸덕하게 마른 속살 부드러운 황태는 매콤한 양념장 입혀 노릇하게 구워낸 황태구이도 맛있고, 국물 맛 시원한 황태해장국도 일품이다. 매년 송어축제가 열리는 평창이니만큼 송어도 평창에서는 꼭 맛 봐야 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다. 콩고물에 찍어 먹는 송어 회 맛은 조금은 식상한 표현이지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딱 그런 맛이다.



대관령 옛길이 시작하는 반정 표석



기관 이병화 유혜불망비



17. 대관령 옛길에서 만난 주막

평창에 송어가 있다면 강릉에는 양미리가 있다. 양미리는 뭐니뭐니 해도 소금을 뿌려 석쇠에 구워 먹는 맛이 최고. 소금구이에 사용하는 양미리는 깨끗하게 씻은 뒤, 내장을 꺼내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뼈째 먹는데, 노릇하게 익은 양미리는 혀에 닿기가 무섭게 사르르 녹아내린다. 애주가들이라면 평창의 전통주인 서주도 놓치기 아깝다. 국내 유일의 감자술인 서주는 평창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감자와 쌀을 7:3 비율로 섞어 만든 청주다. 알코올 도수는 13도. 30년 전통의 서주는 올해 청와대에서 선정한 설 선물세트에 포함되기도 했다.

## 여행정보

<b>선재길</b>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 1-3 일원 / 033-332-6417(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
<b>월정사</b>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033-339-6800
<b>상원사</b>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 033-332-6666
<b>대관령양떼목장</b>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 033-335-1966
<b>대관령 옛길</b>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1 일대 / 033-645-0990(사) 강릉바우길)